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 1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 2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 3 간악한 마귀 날 피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 4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뵈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 1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 2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 3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 4 주 언제 강림 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 곳도 난 알 수 없도다
- 후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 담당

12/6(화)	12/7(수)	12/8(목)	12/9(금)	12/10(토)	12/12(월)
우경섭 안수집사	박재동 안수집사	이승근 재직안수집사	김영식2 안수집사	이윤익 안수집사	정준수 안수집사

2022년 12월 5일(월)

이른아침예배

(대림절 묵상)

인도 : 장지훈 목사

예배를 여는말	인도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송	433장
기도	장명수안수집사
성경봉독	누가복음 15장 18~24절
찬양	곧 오소서 임마누엘
설교	『허랑방탕한, 아들의 아버지』
기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찬송	310장
축도	설교자

☞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5:18~24>

- 18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 19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 20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 21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
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 22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
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 23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 24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
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2년 12월 5일(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올해의 마지막 한 달의 첫 주일을 대림절 둘째 주일로 지키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처럼 다시 한 주간의 일상을 시작하는 이 자리도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허락하신 대림절 기간, 언제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자녀 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서만큼은 조금도 아낌이 없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절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절기의 끝에, 그토록 기다리며 고대했던 아버지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되신 주님! 지난 한 해 동안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에게서 언제나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셨기에, 새문안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은총으로 걸어온 시간들을 매순간 감사로 고백하는 교회되게 하시고, 앞으로도 이 땅의 힘이 아닌 주님 손 위에서만 든든히 서 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어떠한 사탄의 세력도 틈타지 못하여 말기신 말씀과 기도, 모든 사역의 자리마다 넉넉히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와 회복의 손으로 붙드셔서 다시 이 자리로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그 날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나라의 주인 되신 주님! 이 땅의 모든 싸움과 전쟁, 사건과 사고, 질병이 그치게 하셔서 온 세계의 주인 되신 주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와 화평, 자유와 회복이 임하는 날을 속히 맞이하게 하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백성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마음껏 부어주옵소서. 거짓이 난무하는 환경 가운데서도 언제나 옳고 선한 것 분별하여 행할 수 있게 하셔서 이 땅의 모든 영역과 자리들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는 거룩한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